

원희룡 장관,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주재(2보)

- 원장관, “사고 당시 상황을 분초단위까지 확인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숨김 없이 공개할 것”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(목) 안양-성남 고속도로 상황 통제실 현장에서 신계용 과천시장, 이종서 과천경찰서장, 엄범용 제2경인연결고속도로(주) 대표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들과 사고수습상황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터널 화재사고는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할 중대한 사안”이라며, “사고 당시 상황을 분초단위까지 확인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숨김없이 국민께 알려드릴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아울러, 언론에서 피해 확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방음터널 재질의 취약성과 관련한 지난 2월 감사원 의견 및 그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,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.
 - 감사원에서는 방음터널의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일 경우 화염에 취약할 수 있고, 구조체가 가열될 경우 방음판이 탈락할 수 있어, 추후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- 또한, “현장 수습 기간 동안 국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, 긴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방음터널 및 교량에 대해 붕괴 위험, 화재 취약성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2022. 12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